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27〉 베를린 문화포럼 지구 신 국립미술관·회화관

50년만에 다시만난 동·서독 미술품 화려한 도열

베를린=정상필 EU특파원

동·서 베를린 新문화 상징지역
新미술관, 20세기 작품 주로 전시
회화관, 13~18세기 3천여점 소장

독일에서 문화시설 밀집지역을 찾는 일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베를린의 박물관 섬이 고대 및 중세 문화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면 신문화의 상징지역은 포츠담 광장(Potsdamer Platz) 인근의 문화포럼 지구(Kulturforum)다.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됐지만, 공교롭게도 각각은 동·서 베를린의 문화를 대표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포럼 지구는 최근 붕괴 20주년을 맞은 베를린 장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1950~6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동베를린을 향해 자본주의 서독의 문화적 우월성을 뽐내려는 의도가 읽혀진다. 또는 벽 너머의 오래된 문화지구, 박물관 섬을 의식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기본이고, 관현악단 공연장에 도서관까지, 게다가 각 건물들을 설계한 건축가들의 면면도 화려하기 그지없다. 의도야 어찌됐건 방식은 세련됐다. 당시 동베를린이 문화포럼을 부러워했는지 알 길은 없으나 통일이 된 지금, 적어도 동·서간의 균형은 갖춘 모습이다. 심지어는 지리적으로도.

문화포럼 지구 내에는 신 국립미술관을 비롯한, 회화관, 장식 미술관, 베를린 필하모니, 악기 박물관, 그래픽 아트 미술관, 예술 도서관 등이 모여있다. 화려한 미술 작품들이 즐비한 두 곳의 대표미술관을 살펴보자.

◇신(新) 국립미술관(Neue Nationalgalerie)

유리와 강철, 곡선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소재로 만든 단층 구조의 정사각형 건물. 듣기만 해도 딱딱하게 느껴지는 이 건물이 문화포럼 지구 내에 1968년 건립된 신 국립미술관이다. 건물은 눈으로 확인해도 딱딱하게 보인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만나는 변화무쌍한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건물로 들어서면서 받은 각진 첫인상을 다소 누그러뜨린다. 1950년대 설계된 건물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현대적이다.

바르셀로나 국제박람회 독일관(1929)을 설계하고 독일의 유명 건축학교 바우하우스(Bauhaus) 교장을 역임한 반 데어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1886~1969)의 작품인 신 국립미술관은 전시실이 지하로 뻗어있고, 기초가 화강암으로 이뤄졌다. 지상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벽 하나 없이 유리와 8개의 철제 기둥으로 강철 지붕을 받들고 있어 한발 앞선 기술의 건축물로 평가받는다.

20세기 회화 및 조각이 주를 이루는 소장품들은 1920년대 이미 동베를린 지역의 황태자궁(Kronprinzenpalais)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풍부했다. 그러나 1937년 무렵 나치 정권의 '퇴폐 미술 사냥'에 희생돼 소장품은 팔리거나 파괴되기에 이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나마 있던 작품들도 동·서독으로 나뉘게 됐다. 서베를린에서 소장품 규모를 꾸준히 늘려 미술관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통일 이후에 소장품이 더 풍부해졌음은 당연하다.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를 중심으로 하는 '디 브뤼케' 그룹 등 독일 및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절규'를 그린 노르웨이 화가 뭉크에서, 케테 콜비츠의 조각, 파블로 피카소 등 야수파 회화, 폴 클레 등 바우하우스 작품, 막스 에른스트 등 초현실주의 작품, 이브 클라인과 바넷 뉴먼 등 1950~60년대 화가의 작품 등이 전시돼 있다. 1960년대 이후에서 현재까지의 현대미술은 함부르거 역 현대미술관 등 다른 국립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다.

◇회화관(Gemaldegalerie)

문화포럼 지구 내에서도 가장 늦은 1998년 개관한 회화관은 라파엘, 카라바조, 루벤스, 램브란트, 뒤러 등 13~18세기 활동했던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19세기 이전을 대표하는 유럽 화가들의 작품 3천여점이 망라된 것이다. 7천㎡(약 2천100평)의 전시공간에 72개 전시실이 있으며, 동선에 따라 걸으면 거리가 2㎞에 달한다.

회화관 소장품의 역사는 1830년 설립해 박물관 섬에서도 가장 오래된 구 박물관(Altes Museum)에서 시작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프로이센 왕 빌헬름 3세(Friedrich Wilhelm III·1770~1840)가 1815년 프랑스 파리에서 회화 157점을 구입하면서부터다. 1904년 건립된 박물관 섬의 보데 박물관(Bode Museum)의 개관 당시 명칭이 빌헬름 3세를 뜻하는 카이저 프리드리히 박물관(Kaiser Friedrich Museum)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독일 미술관 역사에서 그의 비중을 알 수 있다. 그는 1821년 영국인 수집가로부터 3천점의 작품을 한꺼번에 사들이기도 했다.

소장품들은 보데 미술관 설립과 함께 구 박물관에서 방을 비운다. 2차 세계대전의 상처는 건물 뿐 아니라 작품에도 강하게 미쳤다. 전쟁으로 인해 400여점에 달하는 작품이 유실된 것이다. 동·서독이 분단되면서 작품도 분리 전시되다가 50여년만인 1998년 문화포럼 내에 새롭게 둥지를 튼 회화관에서 모든 소장품을 전시할 수 있게 됐다.

여러 문화시설이 밀집된 문화포럼 지구의 하이라이트는 사실상 회화관이다. 회화관에는 연간 관람객이 수십만명을 넘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설계 당시부터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곳이었다. 신 국립미술관과 비슷하게 외관상 단층 건물이어서 지하로도 전시실이 이어진다. 아폴론 신전의 기둥을 현대화한 듯한 중앙홀과 천장에 구멍을 내 전시작품이 햇빛의 조명을 받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끝〉

/camus@kwangju.co.kr

정사각형 단층 구조의 신 국립미술관. 20세기 중반 유행한 독일 및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작품 등이 주로 전시돼 있다.

문화포럼 지구 광장과 회화관 입구. 회화관에는 13~18세기 유럽 주요 화가들의 작품 3천여점이 전시돼 있다.

회화관 내 카라바조 전시실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회화관에는 13~18세기 유럽 주요 화가들의 작품 3천여점이 전시돼 있다.